

“재정만능 환상서 벗어나야...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윤 대통령 첫 재정전략회의 주제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 졸라매야 공무원 정원 엄격한 운용 등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박순애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인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영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성장 동력 제가동 ▲인재양성·문화융성 지원 ▲성장·복지 선순환 등을 주제로 4개 세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탄탄했던 재정이 (전일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약화했다"며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통과 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운용 등에 나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개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선 필요성도 역설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박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국무위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도 참석하게 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도 아닌 특정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에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치적 중립'으로 짐치는 충청권을 연이을 방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은 2030 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지지를 호락 추이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북대를 택한 것은 지방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해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MZ 세대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고 관계 부처에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주 충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박지원·서훈 투트랙 수사...문재인 청와대 겨누나

서해 피살 유족 고발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칼날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뒷선까지 겨누는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

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접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의 율복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생산한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했다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로도 고발했다. 이씨와 관련한 전자 기록 일부도 훼손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맡겼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게 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일단 두 전직 원장 사건을 두 개 부서에 나눠 배당했지만,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태세 보고 영상에는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본이 이를 두고 외교 경로를 즉각 항의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영상에 나온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 장면을 두고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 10일 취임식에서 상영된 각 군의 대비

태세 보고 영상에는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본이 이를 두고 외교 경로를 즉각 항의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윤 대통령 취임식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이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친서를 들고 사절단으로 방한한 바 있다. 축하

사절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폈던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와 관련,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축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요구 일축

"독립·임기 보장되는 기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권익위는 (위원장)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고,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해야 하고, 다른 장관급 정부부

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 등의 논리가 맞지 않는 취지다.

전 위원장은 이어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해석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9월 당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에 동행했으며 이것이 이해충돌방지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천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